

〈숙영낭자전〉의 ‘몸’의 이미지

정인혁*

— <차 례> —

1. <숙영낭자전>과 몸의 문제
2. 몸의 잉여성과 경계선상의 몸
3. 성애와 모성의 실체로서의 몸
4. 몸의 物化화 再生의 의미
5. <숙영낭자전>의 몸의 담론

〈국문초록〉

〈숙영낭자전〉은 조선후기 애정소설이다. 여성의 정조 문제나 과거 제도에 대한 인식, 혼인 제도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동시에 주인공의 신분이 천상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든지 남녀 주인공이 천정연분으로 맺어져 있다든지, 원한 어린 시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주인공이 재생한다든지 하는 설화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도선적이고 환상적인 성격 또한 강한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서사 전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천상으로부터 부여받은 3년의 기약을 참지 못하고 선군과 숙영이 육체적으로 결연하는 행위, 과거를 보러간 선군이 두 번이나 몰래 되돌아 와 숙영과 동침하는 행위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들의 가장 핵심에 놓여있는 ‘몸’과 그 육체적 실체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숙영낭자전〉에서 ‘몸’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숙영이 자결이라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결말 부분에서 숙영이 죽은 몸 그대로 재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그렇기에 본고는 <숙영낭자전〉의 몸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하였다.

<숙영낭자전〉에서 몸의 이미지는 성애와 모성의 실체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이

*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데올로기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는 물화된 이미지로 등장하면서 가부장제 봉건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다.

주제어 몸, 재생, 자결, 정조(貞操), 애정소설, <숙영낭자전>

1. <숙영낭자전>과 몸의 문제

<숙영낭자전>은 환상성과 현실성이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조선 후기 애정소설이다.¹⁾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염정소설로 정의한 이후 박성의, 김기동, 이희숙, 김일렬, 김충실, 황패강, 박태상, 윤경수 등에 의해 언급되고 연구되어 왔다.²⁾ 특히 김일렬은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 박사학위논문 이후 <숙영낭자전>의 다양한 문학적 특성 및 문화적 관련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여 <숙영낭자전>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왔다.³⁾ 그 외에 판소리로서의 <숙영낭자전> 연구도 성현경, 김종철,

1) 이상구,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304쪽.

2)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 이희숙, 『숙영낭자전고』, 『한국어문연구』 8, 이화여대 국문과, 1968 ; 김일렬, 『조선조 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 김충실,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시련에 대한 연구』,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4 ; 황패강, 『숙영낭자전해제』, 『한국고전문학전집』 5,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 박태상, 『숙영낭자전』, 화경고전문학회 편,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 윤경수, 『<숙영낭자전>의 신화적 구성과 분석 : 국조신화의 3개 모티프를 중심으로』, 『연민학지』 제7집, 1999.

3) 김일렬은 박사학위논문 이후 <숙영낭자전>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논문으로는 『비극적 결말본 <숙영낭자전>의 성격과 가치』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66, 1999), 『판소리 숙영낭자전의 등장과 탈락의 이유』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30권, 1996),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 : 숙영낭자전의 경우』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29권, 1995),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주노간의 갈등』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28권, 1994), 『고전소설의 민요화 : 숙영낭자전과 옥단춘요를 대상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16권, 1982) 등이 있고, 저서로는 『숙영낭자전

문복희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⁴⁾

이들 기존 논의 속에서 <숙영낭자전>은 결연설화와 재생설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선적이고 비현실적인 애정소설이면서 인간애의 각성과 함께 애정을 위해서라면 불효도 무릅쓰는 애정지상주의를 표방한 소설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설화와의 관련성⁵⁾ 속에서 주목된 서사 전개상의 문제, 즉 남자 주인공이 과거 길에 올랐다가 두 번이나 몰래 되돌아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숙영낭자전>에서 두드러진 강렬한 성애적 사랑과 그때 부각되는 육체의 실체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애정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 문제가 되는 것은 흔한 것이지만 대개의 인물들은 결연의 순간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숙영낭자전>의 두 주인공은 그렇지 않다. 남자 주인공 선

연구』(도서출판 역락, 1999)가 있다.

4) 성현경, 『<숙영낭자전>과 <숙영낭자가>의 비교 : 소설의 판소리화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6권, 판소리학회, 1995 ; 김종철,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 문복희,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어문연구』 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근래에는 정선희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서 <숙영낭자전>을 연구한 논의가 있었다. 그밖에 고소설 주인공의 출생담 연구의 한 사례로 <숙영낭자전>을 다룬 김용기의 논의와 고소설의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숙영낭자전>을 논의한 양민정의 연구가 있었다. 김용기, 『고소설 인물출생담의 기능과 의미 고찰』, 『어문논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 양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전소설의 활용 방안 시론』, 『외국문학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 정선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 :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5) 김태준은 문헌설화 <재생연(再生緣)>의 번역(變譯)이 <숙영낭자전>이라 보았고, 손경희는 『태평한화골계전』에 수록된 <科學者潛蹤其妻>를 발견하였는데 그 친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3, 219쪽 ; 손경희, 『숙영낭자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군은 과거 길에 올랐다가 두 번이나 몰래 되돌아와 숙영의 처소로 숨어들고, 여자 주인공 숙영 역시 그러한 선군을 품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두 인물에게 가장 큰 위기와 시련을 안겨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몸’의 이미지는 극명하게 부각되는데, 숙영이 자신의 결백을 ‘자결’로서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숙영이 죽었다가 자신의 죽은 몸 그대로 ‘재생’한다는 점에서 <숙영낭자전>에서 ‘몸’은 매우 강렬하게 이미지화되고 있다. 곧 이들의 몸에 대한 육체적 욕망과 그 욕망의 실제적 대상으로서의 몸이 서사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숙영낭자전>을 이해함에 있어 몸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⁶⁾ 요컨대 서사 전개에 있어 주된 갈등과 결핍의 중심에 숙영의 몸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⁷⁾

본고는 <숙영낭자전>에서 나타나는 몸의 이미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른바 <숙영낭자전>의 몸의 주제론(主題論)⁸⁾이라 할 것이다.

6) 김일렬도 숙영과 선군의 사랑이 관념적으로만 미화되어 있지 않음을 언급했다. ‘깊이와 생동감을 지닌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일렬(1999), 앞의 책, 59쪽.

7) 이를 사랑하는 여인 ‘숙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선군의 사랑의 대상은 더 구체적으로는 살을 가진 실제적 대상으로서 ‘숙영의 몸’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선군의 욕망은 단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과의 사랑이 전제된 특정한 몸에 대한 욕망이다. 이는 선군이 숙영의 ‘말’을 듣지 않고, 숙영의 화상도 소용없으며 매월의 ‘몸’도 소용없었던 점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뒤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8) 문학적 주제론이란 한 이미지가 모티프로서, 또 상징으로서 한 문학작품에 어떻게 포착되고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재선, 『韓國文學主題論』,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1, 7쪽 참조.

2. 몸의 잉여성과 경계선상의 몸

애정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의 전생 신분이 천상적 존재이고 그들의 결연은 이미 천상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등의 환상적 설정이 없지 않지만 <숙영낭자전>은 그 환상성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평가되었다.⁹⁾ 숙영과 선군은 각각 선녀와 선관이었다가 인간 세상에 적거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¹⁰⁾되어 있다.

숙영은 비록 인간 세상에 적거하고 있지만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선녀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생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또 왜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탄생의 배경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선군에 비해 숙영에 대해서는 다만 인간 세상에 적거한 후로 옥연동에 거하고 있다고 간략히 서술된다.

A) 일일은 집 안의 운무 즈욱하며 흥니 진동하더니 늣즈을 툃싱하거날
하날노서 선여 나라와 옥병의 경화수랄 부어 아기를 짓기 누이고 부인드려
이로디 아희는 천승선관으로 요지연의 가 수경낭자로 더부러 희통흔 죄로
상계압서 인간의 적거하와 삼싱연분으로 미지려 하고 이딕의 탄싱하여스

9) 이상구, 『환상성과 운명론적 세계관의 본질』,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303쪽.

10) 판각본과 판각본계 필사본에는 숙영의 죄는 언급되지 않고, 선군이 비를 관장하는 선관이었는데 비를 잘못 준 죄로 적강한 것으로 되어있다. 판각본 및 판각본계 필사본보다 앞선 것으로 여겨지는 필사본계에서는 선군과 숙영이 요지연에서 희통흔 죄로 인간 세상에 적거하게 된 것으로 되어있다. 본고에서 인용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박순호본 <슈경낭자전 권지라> (한글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제26권, 월촌문헌연구소, 1986), 나손22장본 <淑英娘子傳 슈경낭자전>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제27권, 보경문화사, 1991), 이상구 역주,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이 가운데 이상구 역주 <숙영낭자전>은 김동욱 소장 48장본 『낭즈본』을 저본으로 하고 판독이 어려운 부분을 김광순 소장 48장본 『수경낭자전』, 김광순 소장 50장본 『수경낭자전』, 경판28장본 『숙영낭자전』을 참조하여 교감한 것이다.

니 부딪히 이 아회를 잘잘 지르면 삼십연분을 미질거시니 부딪히 흐문의 구혼마
읍소서¹¹⁾

B) 선군의 늑히 십오세라 세승스람아니요 천승선관갓더르 부모 익중흐야
저와 갓탄 비필을 어둡고 날노 광문흐더니 그적의 수경낭즈 천승의 득죄흐
고 옥연동의 적거흔 후로 선군의 금세의 연분이 지중흐야스나 선군은 인간
의 싱중흔 후로 천싱일을 모르고 흐문의 구혼흐더라¹²⁾

A)에서 선군이 백 상공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이유가 선녀에 의
해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것에 비해 B)에서 숙영에 대해서는 간략히 서술
되고 있다. 또한 텍스트 상의 정보로 보건대 숙영은 천상에서 선군과 헤
어진 후로 어떤 변화도 없이 옥연동에 적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서사
논리에 따르면 숙영은 선군이 인간으로 태어나 백 상공 부부에 의해 키워
져 십 오세가 될 때까지 인간의 나이를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
로 숙영은 인간 세상에 거하는 선녀인 것이다.¹³⁾ 인간 세상에 살지만 선

11) <수경낭자전 권지라>, 153쪽.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필자.

12) <수경낭자전 권지라>, 154쪽.

13) 김용기는 숙영이 '애초에 인간계의 인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玉淵洞이라는 仙界의 인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인간계의 부모나 신분이 서술되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다가 숙영이 선군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3년이라는 예정된 시간을 위배하게 되고 그와 함께 선계[옥연동]을 벗어나 '세속화되면서부터는 온전히 현실계의 인물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백 상공으로부터 간통의 누명을 쓰게 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비녀를 하늘에 던져 섬돌에 박히게 하는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의 주체가 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옥연동을 벗어나 인간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용기(2007), 앞의 논문, 123쪽 참조; 한편 김일렬(1999)은 숙영이 옥연동이라는 지상계의 일부이면서도 성격적으로는 천상계에 가까운 공간에 내려와 선녀로서의 육신과 의식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는 선녀로 파악하였다. 그렇기에 숙영은 선녀 아닌 어떤 여성보다 아름답고 진실하고 고귀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숙영이 거하는 옥연동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연결하는 매개적 공간이며 지상에 내려온 천상계 선녀 숙영은 매개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 견해를 지지하며

너 숙영의 몸은 늙지 않는다. 선녀의 몸이지만 인간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숙영의 비인간적 특성은 그의 신이한 능력으로 인하여 더욱 신비롭게 그려진다. 숙영은 자신의 거처에서 선군의 일을 알고 현몽(現夢)하여 선군을 깨우친다.

부모 천금갓치 이중이 여겨 일흠을 선군이라 호고 그와 갓튼 비팔을 으더 슬흐의 즈미를 보고져 날이 구흔되 의혹흔 곳지 읍셔 쥬야 근심되더라 잇디은 선군의 나히 이팔리라 출일을 당하여 서당의서 글을 익더니 즈연 몸이 곤뇌하여 글계를 지여 조으더니 문득 농의홍상흔 낭즈 문을 열고 드려와 직비하고 곁히 안즈며 가로디 그디는 날을 몰느 보시는잇가 너 이제 읍은 다름 아니라 낭군과 천상연분이 닛습기로 츠자 왓노이다 선군이 가로디 나년 인간 속직이요 그디년 천상선여날 웃지 연분잇다 호는요 낭즈 가로디 모로미라 낭군이 본디옥경의 비 맛튼 견관으로서 인간의 비 그릇 쥬 죄로 인간의 내려와스오니 이 압희 즈연 상봉홀썩잇스리라 호고 문득 간디읍거날 선군이 고이여져 씨다르니 남가일몽이요 그 향너 방중의 진동흔지라.¹⁴⁾

꿈에 본 숙영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선군이 식음을 전폐하고 앓게 되자 숙영은 다시 꿈을 통해 약을 주기도 하고(아래 인용문 (A)) 자신을 그린 그림을 주어 선군의 심회를 달래고자 한다. 또 선군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음을 걱정하여 금동자(金童子) 한 쌍을 주어 부유케 하기도 한다.(인용문 (B))

다만, 그런 점에서 숙영은 매개적인 존재로서 정의되지만 동시에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존재인 셈이다. 김일렬, 앞의 책, 58~60쪽 참조.

14) <淑英娘子傳 슈경낭자전>, 201쪽.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필자.

A) 낭직 옥연동 격거호엿시느 낭군의 병세 중흔 줄을 알고 밤마다 몽중의 왕너호여 니로디, 낭군이 웃지 날만흔 안여즈을 위호여 병이 저디지 김퍼는 잇가 니 약을 씨웁쇼셔 호고 옥병 세슬 너여 노호며 가로디, 호느는 불스초웁고, 쏘 호느는 불스초웁고, 쏘 호느난 만정취온이 부디부디 니 삼약을 씨웁고 삼연만 츄무쇼셔.¹⁵⁾

B) 낭직 쏘흔 싱각호되 낭군의 병이 점점 중호고 가세 빈호흔이 웃지호여 야 세간을 니루게 호리요 호고 쏘 쉼의 와 일로디, 낭군의 병세 점점 중호고 스세 곤궁호웁기로 금동즈 흔 쌍을 가져와싸온이 낭군입 즈시는 벽승의 안 처두웁시면 즈연 부귀호올리다. 쏘흔 화승을 주며 왈, 니 화승은 첩의 용모 온이 밤이면 덩고 즈웁고 느지면 병풍의 걸러두웁쇼셔 호거날, 씨달른이 발 쏘 간디웁는지라.¹⁶⁾

그러나 신이한 능력을 지닌 선녀이지만 정조(貞操)의 문제에 있어서는 숙영 역시 인간 세상의 여느 여자나 다름없이 인식된다.

숙영과의 애정 생활에만 몰두하는 선군에게 백 상공은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할 것을 명하는데, 한 시도 숙영과 떨어지고 싶지 않던 선군은 과거 길에 두 번이나 돌아와 몰래 숙영과 동침한다. 마침 집안을 순찰하던 백 상공은 별당에서 들려오는 선군의 목소리를 듣고 시비 매월을 시켜 지켜보게 한다. 선군을 모셨던 기억을 그리워하던 매월은 숙영에게 양심을 품고 돌쇠를 매수하여 상공이 순찰할 때를 틈 타 돌쇠로 하여금 외간 남자가 숙영의 방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상공은 숙영이 진짜로 외간 남자와 사통을 했다고 여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8년을 거하면서 손녀 손자를 두고 온갖 정성으로 모시기에 가뜰스 여기던 숙영을 상공

15) 이상구 주석(2010), 앞의 책, 246쪽.

16)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46~7쪽.

은 너무도 모질게 문초한다.

상공니 점점 분기등등하여 왈, 종시 통간한 난 몸을 못 알손야 하며 종 등을 시켜 낭즈를 결박하여 밧을 쳐 궁문하여, 낭즈의 <구>름갓치 허튼 머리 옥 갓튼 낫을 덤퍼 흐르느니 눈물이요 선난이 유혈을 보타이 센멤니 썬놈논 이 살거리는 익미흔 분을 도와 죽기를 직촉하고, 살 쫓지 전혀 업서 신세도 가련흔지라. 낭즈 정신을 차려 왈, 아무리 육례를 안니 갓춘 며늘인들 니 갓튼 음형으로 입피웁고, 나 목으로 보시다 흐웁고 박련 분노하시이, 발명 무로호오나 점점 통촉흐웁쇼셔.¹⁷⁾

비록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기에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백 상공에게 숙영은 선녀가 아니라 선녀같은 여인일 뿐이다. 오히려 숙영은 인간 사회의 공식적인 질서가 부여하는 지위나 신분도 확인되지 않은 소위 '근본 없는' 여자일 뿐이다. 육례를 갖추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나 '동별당(東別堂)'을 처소로 하였다는 것¹⁸⁾들 모두 숙영의 몸이 갖고 있는 '잉여성'을 보여준다.

몸의 소유권은 그 소유주에게 절대적으로 귀속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몸은 반드시 타자의 시선을 통해 구성된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코 자신의 몸을 전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눈은 나의 이면을 바라볼 수 없으며 비록 내가 다른 것을 통해 나의 뒤를 바라볼 때조차도 나의 시선 자체는 나에게 의해 목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나의 몸의 구성에는 언제나 '잉여성'이 존재한다.

17)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66~67쪽.

18) “이적의 낭즈 시부모 양위게 현안하은이 상공 부쳐 공경 지극하고, 낭즈를 즈시 본이 설부와용은 천하결식이요, 양안의 흥도화 춘풍의 현날이논 듯하더라. 상공 부쳐 이중이 여겨 낭즈를 동별당의 처소를 정하고, 위낭지약을 이류게하이 두 스텝의 정이 비홀 썬 업더라.” 이상구 주석(2010), <숙영낭자전>, 254쪽.

결국, 숙영이 선녀이고 정절을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되는, 잉여성을 지닌 몸이다. 그리고 이렇게 ‘타자에 의해 구성된 모든 이미지는 반드시 불완전’¹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숙영’의 문제가 아니라 숙영의 ‘몸’의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숙영의 몸 역시 백 상공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 없는 불완전한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이다. 숙영의 몸은 그 존재조차 의심스러운 경계선상의 몸인 셈이다.²⁰⁾

3. 성애와 모성의 실체로서의 몸

<숙영낭자전>은 여타의 작품에 비해 환상성이 한결 두드러지며, 이러한 환상적인 특질은 숙영의 처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강력한 현실성을 내포하게 된다.²¹⁾ 선녀 숙영의 ‘몸’은 선군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애정소설의 여주인공보다 현실적인 여인의 몸으로, 또 한편으로는 춘양과 동춘의 어머니로서 실체화된다.

<숙영낭자전>에서 선군의 ‘숙영’의 몸에 대한 강한 집착은 서사 전반에 걸쳐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꿈에 한 번 모습을 숙영으로 인하여 상사

19)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329쪽.

20) 천상적 존재로서 숙영이라는 인물이 갖는 성격은 조선후기 ‘기녀신분갈등형 애정소설’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기녀가 양반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적 욕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비천한 신분이기에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 극복의 의지가 주동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애초에 신분의 출처가 천상이기에 인간 사회에서 뚜렷한 근본이 없는 숙영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 극복 내지 결핍 해소의 차원에서 자신의 극복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6쪽.

21) 이상구(2010), 앞의 책, 303쪽.

병에 걸린 선군은 숙영이 직접 나타나 달래주어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

낭군이 첩을 모로시고 타문의 구혼을 하시오니, 천스 강연니분으로 요지현의 가서 낭군으로 더부러 희롱흔 꾀로 승계계옵셔 인간의 니치시미, 인간의 셔 인연을 금세에 결친하라 하였던이, 웃지 타문의 구혼을 하려 하시니잇가? 낭군은 삼연만 위헌하고 첩을 기다리옵쇼셔. 직삼 당부하고 문득 간디옵거날, 썩다른이 남가일몽이라. 낭군의 썩싸온 얼굴리며 낙인지식과 폐월슈화 지티는 천승 명월리 구름 속의 쇼스노는듯하고 단순호치를 반만 여러 호는 쇼리 귀에 징징하고, 옥 갓튼 얼굴이 눈의 삼삼하여 증츄 병이 되었는지라.²²⁾

이러한 선군의 상태를 안 숙영은 다시 선군의 꿈에 나타나 달래고, 약을 주고, 자신의 화상을 주지만 선군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다.

낭지 옥연동 격거하였시는 낭군의 병세 중흔 줄을 알고 밤마다 몽중의 왕 너하여 니로디, 낭군이 웃지 날만흔 안여즈을 위하여 병이 저디지 겁퍼는잇가? 니 약을 씌옵쇼셔.²³⁾

선군이 더욱 병세중흔더라. 낭지 썩흔 심각하되, 낭군의 병이 점점 중하고 가세 빈흔흔이 웃지하여야 세간을 니루게 하리요? 하고 썩 썩의 와 일로디, 낭군의 병세 점져 중하고 스세 곤궁하옵기로 금동즈 흔 쌍을 가져와싸온이 낭군입 즈시는 벽승의 안쳐두옵시면 즈연 부귀하올리다. 썩흔 화승을 주며 왈, 니 화승은 첩의 용모온이 밤이면 덤고 즈웁고 느지면 병풍의 걸러두옵쇼셔 하거날, 썩달른이 발셔 간디옵난지라. ...中略... 글어는 선군의 병이 초효가 읍는지라.²⁴⁾

22) 이상구 주석(2010), 앞의 책, 245쪽.

23)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46쪽.

특히 숙영이 자신을 그린 화상(畫像)을 주고 그것을 밤에 덮고 자라는 것은 그것으로라도 자신의 신체를 대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군에게는 이도 소용이 없다. 선군에게는 피와 살로 구성된 살아있는 몸이 필요한 것이다. 숙영은 대신 시비 매월을 방수로 두고 심회를 진정케 한다. 하지만 그 역시 선군의 욕망을 달래줄 수 없다.

딕집의 종 미 잠간 방수를 흐와 울적흐 심회를 진정흐옵쇼셔 흐고 문즉 간디읍거늘, 씨달은니 남가일몽이라. 닛튼날 비자 미월을 불너 동첩을 삼은니 제유 심회를 증흐느, 탐탐흐 정은 낭즈와 못흐지라. 미일을 낭즈을 싱각흐니 울울흐 심회와 총총흐 심회를 이기지 못흐느지라.²⁴⁾

결국 선군이 욕망하는 것은 실체로서의 숙영의 몸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표현하자면 선군의 숙영에 대한 사랑은 육체적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몸에 대한 실체적 사랑이다. 그렇기에 만날 날을 기약함으로써 헤어짐을 인내한다든지, 숙영의 화상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여인의 몸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숙영이 그렇게 설명하고 강조하더라도 위중한 3년의 기약 역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몸 달아 고대하던 숙영을 눈앞에 둔 선군의 마음은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는 선군을 숙영 역시 막을 수 없다.

선군니 덕왈, 일일여삼취라. 습연니 몇 습취란 흐느니가? 낭직 만일 그저 도러가라 흐시면 선군니 목슴니 비조직석니라. 닛 목슴니 황천의 외로운 혼 빅니 되오면, 낭즈의 신명닌들 온전하올니가? …中略… 스싱을 결단흐니, 낭즈 형세 문부티스지승니라. 빅니스지흐야도 무가니히라.²⁵⁾

24)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46~47쪽.

25)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47쪽.

이렇게 결연하게 된 선군과 숙영은 선군의 집에 와서 살면서 한 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선군은 학업을 전폐하게 되고 이를 우려한 백 상공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과거 길에 오른다. 선군은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내비친다.²⁷⁾ 강하게 주장하던 선군이 뜻을 굽힌 것은 숙영 때문이었는데, 숙영은 과거에 오르지 않으면 자신은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²⁸⁾

선군이 낭자로 더부러 밋일 희롱하며 일제도 잊지 못하여 써너지 안이한 고, 또한 학업을 전폐하이 상공부처 미망하나, 다만 선군뿐이라 꾸짓도 못하느니라. 세월이 여류하야 팔연을 지닌이 즈식 남미를 느안느니라. 쌀의 일흠은 춘양이요 아들의 일흠은 동춘이라 고²⁹⁾

선군으로 더부러 이로되, 너 드은니 금방 과거을 보다 하이, 너도 경성의 울너 입신양명하여 부모 안전의 영화를 보이고, 조선을 비늬미 엇더하뇨? 하시고 즉일의 과거 길을 직촉하이, 선군이 되얌 우리 세간니 천하의 일부요, 너비 천여 귀라. 군신지소악과 이목지소욕을 심되로 하을 거시어날 무어시 부족하와 급제 바라이요? 하이, 이 말은 잠시도 낭조를 이별하고 써날 뜻지 업시니라. 낭조 방의 드러가 부친 말삼을 하며 과거의 안이 가기로 말삼하이,

26)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52쪽.
27) 특히 판각본계 필사본은 과거를 보아 입신양명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보이고 선조를 빛내라는 상공의 말에 '우리 전답이 슈천석적이오 노비 천여인이라 심지소소락과 이목지소호를 임의되로 흘거시어늘 무슴 부족하미 잇서 급제를 바라리잇고'라며 강한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경성 서적업조합 편집부 편찬, <特別 淑英娘子傳>, 1920. (현실문화, 2007), 7쪽.
28) 박태상은 선군이 결국 과거에 오르는 것을 보고 실상 부모와 대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선군의 마음이 바뀐 것은 부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보다는 숙영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박태상, 『조선조에정소설연구』, 태학사, 1996, 38쪽 참조.
29) 이상구 주석(2010), <숙영낭자전>, 254쪽.

낭주 음용 뒤왈, 장부 세상의 처흔미 고스온 일흠을 용문의 올리고, 영화을
 부모 안전의 뵈옵고, 조선의 빗너미 장부으 써져흔 일이어날, 이제 낭주이
 첩을 잊지 못흐옵고 과거의 안이 가오면 공명도 일스옵고, 또한 부모 양위와
 다른 스펀이라도 첩의게 혹혀 안이 간다 홀 거신이, 낭군은 마음을 회심하
 여 익연 어린 정을 두어 달 이지시고 금번 장원급제하셔시면 부모게 영화되
 면 그 안이 승쾌하며, 이 마음도 귀하면 그 안니 총양하올이까? 하고 향장을
 츠려쥬며 왈, 낭군니 만일 과거의 안이 가시면 맛참너 스지 안이하로이다
 하고 금은 슈천 양과 노복 오육 년과 은안준말을 터여쥬며 길을 지촉하이
 선군이 마지못하여 금미연 춘삼월 땅간의 발헝하스 부모 양위게 하죽하고,
 낭주를 이별하여 도라보며 왈³⁰⁾

선군이 한 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숙영과 헤어짐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숙영이 죽어 다시는 그녀의 몸을 안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는 선군을 과거 길에 오르게 하려는 숙영의
 수사법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 관점일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드러나
 는 선군의 숙영에 대한 마음으로 볼 때 숙영의 자결 내지 살지 못할 것임
 을 암시하는 표현만으로도 그 진지함은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선군은 잠시의 이별도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그러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군의 몸은 그가 마음에 품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한다. 과거 길에 오른 선군은 두 차례나 숙영의 몸을 안기 위해 몰래 담장
 을 넘는다. 이러한 선군을 숙영은 주의를 주면서도 품어주는 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두 인물 사이의 육체적 관계가 부각된다.

밤초침의 식각하이 낭주의 얼골리 눈의 삼삼하고 말쇼리 귀에 징징하야
 답답한 경희을 이기지 못하여 이경 말 삼경 초의 하인이 다 잠을 들거늘,

30)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55~56쪽.

선군이 그제야 신발을 도도하고 집으로 도라와 담장을 너머 낭주의 들러가니, 낭주 놀너여 가로되, 엇지 이 집뿐 밤의 완는잇가? 선군이 되왈, …中略… 하고 낭주와 더부러 말하며 질기던이³¹⁾

또 닛튼날 발헝하여 제유 오심 니을 가 숙쇼을 경하고 석반을 지는 후의 또한 심식 온전치 못하여 낭주의 당부하던 말은 무릅스고 흥니 모로게 집의 도러와 낭주 방의 드러가니, 낭주 되경길식하여 왈, 낭군니 날 갓튼 스품을 스모하여 공명의 마음니 읍고 이갓치 할진디, 진실노 니 몸이 죽어 모릅니 올토다 흥니, 선군니 도로혀 무류하던라. 이 말은 낭주 연연헌 정니 간절헌 낭군의 심회를 위로흠일너라. 일러구러 정담으로 담화하던니³²⁾

대개의 애정소설들에서 연인간의 결연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별의 고난을 주지만 두 남녀주인공은 그 시간을 견뎌냄으로써 결연이라는 달콤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달리 <숙영낭자전>의 두 주인공은 그 기간을 참아내지 못한다. 그들 간에는 반드시 '몸'을 매개로 한 애정이 있다. 선군과 숙영 사이에는 사랑도 애정도 실체로서의 몸이 결락되고는 의미가 없다. 더욱이 자신들의 젓값이자 대숙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숙영과 선군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

<숙영낭자전>의 주인공들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다. 숙영을 보고 싶어 상사병에 걸리는 선군이야 다른 남자 주인공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 길에 오른 뒤에도 두 번이나 숙영의 침소로 뛰어드는 모습이 나 숙영 역시 3년의 기한을 채워야 함을 알면서도 초췌한 선군의 모습에 자신의 처소를 가르쳐주고 몸을 허하는 모습은 모두 이와 같은 그들의 몸예의 이끌림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몰래 찾아 온 선군과 함

31)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59쪽.

32)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60쪽.

계 있는 것을 들키게 된 상황에서 동춘을 잠재우는 척하거나 매월과 함께 있었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나 고귀한 선녀로 품행을 조신하게 하던 것에 비해 음행의 오해를 받게 되자 극렬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옥제에게 선군과 인연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모두 성숙하고 조신한 양반가 아녀자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다. 바로 이것이 실체로서의 숙영의 몸이 갖는 현실적 이미지인 것이다.

이러한 실체로서의 몸은 어머니 숙영과 딸 춘양, 그리고 아들 동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성의 대상으로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숙영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치욕을 씻고자 한다. 그러나 몇 번이고 망설이며 결행하지 못하는 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 두고 갈 자식들 때문이었다.

이적의 춘양의 나흔 칠세요, 동춘의 나흔 십세라. 춘양이 낭즈의 치마을 붓들고 울며 엇즈오되,

“어머임, 어머임, 어마임아! 죽지 말고 살어보오. 죽은 후의 닌들 어니흐며, 동춘인들 어<니> 살소? 아마임 너러오시거든 이 원통흔 사정이나 흐와 익미흐신 원을 흐옵소서. 동춘니난 밧서 젓 먹즈 흐고 우느니다. 방의 들어가 동춘이 젓시느 먹여줍소서. 만일 어마임 죽스오면 울리 <남>미은 누을 의지하여 살느 흐시느이가?”

<흐고> 울며 어미 손을 잇글고 방으로 들간이, 낭즈 마지못하여 방의 들어가 춘양 젓티 아니고 동춘을 안고 젓슬 먹이며 곱곰 싱각하니,

‘어지 살라잇셔 둘러온 세승의 부지하여 천승스와 요지현을 이지로.’

그러느 낭군과 즈식을 싱각하니, 난낫 간중의 일천 줄 불 이러느 오장육보를 티와원이 빅설갓치 혼 얼골리 먹장갓치 거머온니, 연연현 말소리도 썩어진 그릇 되어 잠잠흔 눈물노 옷깃슬 적시며, 원갓 치복을 너여노코 춘양의

머리를 만지며 니로디³³⁾

숙영은 자신의 정조를 더럽힌 세상에 부지하며 천상에서의 일을 잊고 살기보다는 죽기를 마음먹는다. 하지만 자결하고자 하는 숙영의 마음을 눈치 챈 춘양의 만류에 숙영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한다. 자결함이 마땅하나 낭군과 자식 생각에 간장에 불이 일어나고 오장육부를 다 태울 것 같은 슬픔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 것이다. 이러한 애끓는 모성은 딸의 머리를 빗겨주는 행위로 구체화된다. 시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 심지어 노복들에게마저도 더러운 여자로 모욕을 받은 몸이지만 사랑하는 딸 앞에서 숙영은 다정하게 머리를 빗겨주는 어머니로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숙영의 몸의 모성성은 숙영이 자결한 뒤 이미 식어버린 숙영의 젖을 어린 동춘이 빨고 있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춘양 동춘이 놀녀여 썬니, 엇지 천지 무심하리요? 황겁 중의 보니 낭즈 가삼의 칼을 시고 유혈니 낭즈하거늘, 춘양이 디경질식하여 흡기 칼의 질너 죽으리라 하고 칼을 썬려 하이 빠지지 안니하느니라. 춘양이 동춘을 썬워 다리고 신체을 붓들고 낫출 훈티 디이고 디성통곡하여 왈,

“어만입아, 어만입아! 이 릴니 어인 일고? 놀과 동춘을 다려가옵쇼셔”

하며 슬피 운이 곡성니 원근의 들니거늘, 승공 부부와 노복 등이 놀녀여 드러간이 낭즈 가삼의 칼을 시고 죽거썬늘, 경황분주하여 칼을 썬려 하이 원혼니 되어 칼이 빠지지 안니하이, 으모리홀 썬을 모르고 승하 노복이 진동하여 동춘은 어미 죽은 줄 모르고 달여드러 젖슬 썰며 안니 놀다 하고 운니, 춘양이 동춘을 달녀여 왈,

“어만입 잠을 썬거든 젖슬 먹즈”³⁴⁾

33) 이상구 주석(2010), <숙영낭자전>, 271~72쪽.

34)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74~75쪽.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가슴에 칼을 꽂은 채로 죽어있는 어머니의 시체를 본 딸의 놀람과 슬픔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미 죽은 어머니의 신체를 붙들고 마치 살아있는 양, 그 온기와 감촉을 느끼려고 그 얼굴을 부비는 행위는 단순히 모녀간의 사랑과 그들 사이의 이별이 갖는 슬픔과 아픔이라는 추상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하는 어머니의 체온과 손길을 느낄 수 없다는 실체적인 헤어짐의 두려움과 그에 대한 거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버린 어머니의 나오지 않는 젖을 물고 있는 어린 동춘의 모습은 모자간의 이별이라는 슬픔의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모자간의 사랑에 있어서 그 육체적 실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동춘이 숙영의 젖을 무는 행위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동춘이는 누이가 업어주는 것도 밥도 물도 거부한다. 오직 어머니 숙영의 젖이 필요하다.

“동싱 동춘아, 어만임 죽어신니 우리는 어니 살며, 너의 거동 보기 슬타”
 흐며 쏘흔 신체를 붓들고 낫출 흘들며 왈,

“어만임아, 어만임아! 놀니 불가온이 어셔 니러느쇼. 히가 도도온니 니러
 느쇼. 동춘은 젓 먹즈고 어버도 안이 듯고 안느도 안니 듯고 어만임만 부르
 며 우는이다. 밥을 쥬어도 안니 먹고 물을 쥬어도 안이 먹고 젓만 먹즈는니
 다.”³⁵⁾

어머니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고귀한 감정이자 가치인 동시에 그 육체적 온기와 감촉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이기도 하다.

35) 이상구(2010), 앞의 책, 275쪽.

4. 몸의 物化化 再生의 의미

숙영은 음행을 일삼은 여인으로 의심을 받게 된 것을 원통히 여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숙영의 자결한 몸에 대한 묘사이다. 숙영의 원한어린 시체는 그 로테스크하게 그려지고 있다.

칼을 뽑피 드러 가슴을 지로이, 청천벽일의 우르르 흐고 뇌성 천지 진동호거늘, 춘양 동춘이 놀리어 씨니 엇지 천지 무심하리오 황경 중의 보니 낭즈 가슴의 칼을 싼고 유혈니 낭즈호거늘, …中略… 곡성니 원근의 들니거늘, 상공 부부와 노복 등이 놀리어 드러간이 낭즈 가슴의 칼을 싼고 죽겨썬, 경황분주호여 칼을 썬라 호이 원혼니 되어 칼이 빠지지 아니호이, 오모리홀 쓸을 모르고 승호 노복이 진동호여 동춘은 어미 죽은 줄 모르고 달여드러 젖을 썰며 안니 논다 호고 운니³⁶⁾

방에는 숙영의 시체가 놓여 있다. 시체의 가슴에는 칼이 박혀 있고 유혈이 낭자하다. 여전히 박혀 있는 서슬 퍼런 칼을 두고 어린아이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다.³⁷⁾ 상공 부부와 노복들은 가슴에 박힌 칼이라도 빼려는데, 원혼이 서린 칼은 가슴에 박힌 채 빠지지지도 않는다. 비극적이고 음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상공 부부는 선군이 숙영의 죽음을 알면 반드시 실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라 걱정하며 숙영의 시체를 선군이 돌아오기 전에 처리하고자

36)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75쪽.

37) 숙영의 자결과 관련한 '끔찍한 묘사'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적 성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66쪽; 최성민, 『그로테스크와 엽기의 주제사(主題史)』, 『현대문학이론연구』 3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79쪽 각주 10) 참조.

한다. 하지만 숙영의 시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송공 부처 생각해되,

‘낭즈 니제 죽어신이, 선군니 도라와 낭즈 가삼의 칼을 찿고 죽은 피양을
보면 분명이 우리 모함하여 원통이 죽은 줄 알고 선군이 결단코 죽글 거신
니, 선군이 내려오지 안니하여서 낭즈의 신체를 간슈하미 올타’

하고 방의 드러가 소렴을 흘려 하니, 신체가 방의 붓고 요동치 안이하니,
송공 붓쳐와 노복 등이 그 거동을 보고 아무리홀 줄을 모로더라.³⁸⁾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가슴에 칼이 박힌 채 유혈이 낭자한 숙영의 가
녀린 시체는 노복들이 힘을 써도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 광경
은 슬프고 비극적인 것을 넘어 기괴하고 공포스럽다.³⁹⁾ 이때의 기괴함은
그 죽은 시체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배가된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비극성이 더욱 강조된다.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었던 절
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선녀 숙영이 한갓 인간의 어리석은 의심과 욕심
으로 인해 처참하게 찢겨지고 부끄러운 곳을 드러낸 채 놓여져 가장 공포
스럽고 혐오스러운 물체로 놓여있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숙영의 노출된 ‘가슴’은 두 가지 의미에서 실
체로 다가왔다. 숙영의 노출된 가슴은 아이를 배불리 먹이는 어머니의 품
요로움과 모성애의 실체이고, 사랑하는 연인을 달래는 에로틱한 성애적
사랑의 실체인 것이다.

38) 이상구 주석(2010), 앞의 책, 277쪽.

39) 이와 같은 ‘죽음’ 자체의 기괴함, 잔혹함, 그리고 그 자체의 공포가 강조되는 작품들,
예를 들어 <숙영낭자전>을 비롯하여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변강쇠가> 등
이 18~9세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흥미롭게도 서양에서도 이러한 이미지가 강조되는
‘고딕(Gothic)소설’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숙영은 그런 자신의 가슴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찌른다. 아이를 품고 그에게 물려야할 가슴을 찢어버린 것이다. 아이는 섶을 풀어헤치고 죽은 어미의 젖을 빨다. 모성의 상징이지만 감추어져야 할 여성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은 더 이상 모성의 상징도 아니고 감추어야 할 여성의 신체, 노출되면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숙영의 결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이의 입에 물려 무엇보다도 푸근하고 풍요로움을 자랑해야 할 가슴은 이제 사물화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던 숙영의 몸은 하나의 사물이 되고 만 것이다.

숙영의 시체는 선군이 돌아와 죽은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가슴에 박힌 칼을 뽑 때까지 그렇게 놓여 있다. 이는 숙영의 치부를 드러낸 채 움직이지 않는 죽은 몸이 바로 숙영의 결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의미한다.

할임니 제유 경신을 츠려 통곡하며 신승의 답퍼든 거슬 벽기고 본즉, 옥
갓튼 낭즈 가삼의 칼을 쪼고 즈는 다시 누어겨늘, 할임니 부모를 도러보와
알,

“아모리 무상흔온들 이제갓지 칼을 썩지 안이혀여삼는이가?”

하며 선군이 칼을 잡고 녹슬 흔퓌 툇고,

“낭즈야, 낭즈야! 선군이 너 도러와너. 이러느쇼, 이러느쇼”

하며 칼을 썩이 퓌켜든 구멍으로 청초 시 세 마리 날라너며⁴⁰⁾

남녀유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숙한 여인은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단정히 하였다. 신체의 노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숙영은 정숙한 여인일 뿐 아니라 인간보다 고결한 선녀이다. 그런

40) 이상구 주석(2010), 앞의 책, 290~91쪽.

그녀가 여성의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부분인 가슴을 방 한 가운데에 드러누워 노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울만 그럴듯한, 그리하여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부장적 봉건제 사회의 정조라는 윤리적 관념에 대해 무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죄 없는 여인에게 가한 범죄의 현장에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 덩어리로 남아서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한편 숙영은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유교적 장례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장례 치리줄 것을 요구한다.

잇씩 할임니 낭즈 신체를 안장하라 호고 제문과 장에 계교을 츠리던니 니
 늘 밤의 일몽을 어든니, 낭즈 허튼 머리를 산발하고 만신의 피을 흘리고 방
 문을 열고 들려와 젓티 안저 왈, 슬푸다, 낭군임아! 옥석을 귀별하여 첩의
 익미흔 이를 발켜쥬옵시니 ...중략... 낭군임아! 첩의 신체를 육연 창포로 질
 근 목겨 신손의도 못지 말고 구손의도 못지 말고 옥연동 못 가온디 너허쥬옵
 시면 구천 타일의 낭군과 춘양 동춘을 다시 볼 듯호오이, 부더부더 헛되이
 싱각찌 마옵시고 나의 말삼디로 호옵소서.⁴¹⁾

기존의 유교적 관점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숙영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한다. 이는 또한 서사적으로 물화된 육체의 변형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매장됨으로써 죽은 자가 산 자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유교적 장례를 거부하고 유동적인 물과 하나가 됨으로써 육체의 탈화가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숙영의 자결로 인한 죽음은 유교적 질서에서 의미하는 바, 삶의 ‘종결’이 아니다. 숙영의 몸은 죽음으로써 도덕과 윤리라는 중세적 질서에 속하지 않

41) 이상구 주석(2010), 같은 책, 297쪽.

고, 죽음의 종결성을 배제한다. 숙영의 식어버린 몸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백 상공을 비롯한 타자들일 뿐⁴²⁾ 현몽한 숙영의 말을 통해 재생의 가능성을 믿는 선군이나 여전히 젖을 물고 빠는 동춘은 숙영의 죽음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물화(物化)된 숙영의 몸은 실제적인 몸으로 재생한다.

숙영의 실체로서의 '몸'이 부각되는 절정의 순간이 바로 숙영의 '재생'이다. 숙영은 자결하고 다시 자신의 몸으로 재생한다. 다른 몸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춘이 빨던 그 젖을 가진 몸으로, 또 선군과 사랑을 나눈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여기서 환기되는 것은 그저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숙영 자신의 몸으로 다시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몸은 다른 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애정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온갖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쉽사리 결연하지 못한다. 남녀 주인공이 겪는 고통은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된다. 독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연민과 슬픔을 느낀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는 중에도 이들의 사랑은 지고지순하다. 그래서 애정소설은 독자들에게 때로 비극미와 비장미 등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숙영낭자전>의 경우는 그 비장함이 지나쳐 비참하며 잔혹하기에 이른다. 숙영의 비참하게 찢겨진 가슴과 그 식어버린 가슴을 빠는 어린아이, 움직이지 않는 시신으로부터 느껴지는 엄숙함과 비극적 장면은 천상적 존재로 비범한 능력을 보이던 살았던 때의 아름다운 모습과 교차되면서 단순한 엄숙과 비장미 이상의 무언가 기괴한 미감을 선사한다. 현실과는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찌면 광기나 조롱마저도 느껴지는 시선으로 숙영의 방 안에 벌어진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까지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로테스크인

42) 케리 솔 모슨(2006), 752~54쪽 참조.

것이다.⁴³⁾

5. 〈숙영낭자전〉의 몸의 담론

숙영과 선군은 천정인연으로 맺어진 천상적 존재들이다. 숙영은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당대인들을 속박했던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서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다. 숙영은 억울한 누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들을 남겨두고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한다. 선군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다름없는 숙영의 주검을 목격한다. 춘양과 동춘은 죽은 어미의 식어버린 몸을 부여안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한다. 세상 어떤 인간보다 고귀하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천상적 존재와 그들에게 비극을 선사한 현실적 문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면 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작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과 인물 사이의 간극은 어떤 기괴함을 느끼게 한다.

숙영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찢러 자결하는 장면에서 초점화되는 것은 ‘육체적 실제성’⁴⁴⁾이다. 환상적인 모티프들이 즐비하지만 <숙영낭자전>에서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이미지는 바로 선혈이 낭자한 채 가슴에 칼을 꽂고 죽어 있는 선녀의 몸이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함인 것이다.

그로테스크는 결국 삶의 현실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남편이 죽으

43) 최성민(2009), 앞의 글, 275쪽 참조.

44) Philip Thomson 著, 金榮茂 譯, 『그로테스크 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1~12쪽.

면 따라 죽어야 했던 여인들, 정절 모해로 인해 더 이상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들, 그들의 현실이 잔혹하고 기괴한 것이다. 다만 주목되지 않았던 것들이 <숙영낭자전>의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통해 보다 자세히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로테스크는 바로 현실의 잔혹함을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비추듯이 부각시키는 묘사와 재현의 방식인 셈이다.⁴⁵⁾

<숙영낭자전>에서 천상적인 존재인 숙영과 선군은 인간들의 질서 속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만다. 아무리 초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져도 숙영에게 덧씌워진 음행의 오해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시선과 가부장적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숙영이라는 천상적 존재가 속한 천상계의 영향력이 인간계에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천상적인 것의 권위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선군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지배계급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횡포를 강하게 폭로한다. 아녀자의 정조 문제와 같은 가부장적 봉건사회의 가치가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된 죽은 숙영의 몸은 합리와 이성의 지배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상징인 것이다.

<숙영낭자전>의 사건은 숙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숙영의 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숙영의 몸은 인간 세상에 있지만 선녀의 몸이다. 그래서 먼 곳에서 투시할 수 있고 예지할 수 있으며 꿈을 통해 뜻을 전하고 천상계와 지상계를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신기루와 같은 환상의 존재가 아니다. 선군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성애의 실체이며 춘양과 동춘에게는 살가운 어머니로서 모성의 실체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가 요구하는 신분을 갖추지 못해 차별당하며 인간 사회의 정조라는 명분 앞에서는 여느 여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숙영의

45) 최성민(2009), 앞의 글, 290~291쪽.

몸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경계선상의 몸이며 생명의 탄생과 사랑,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까지 담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숙영낭자전>에서 숙영의 몸은 때로 신비의 대상이며, 때로는 에로틱한 성애의 실체이자 따뜻한 모성의 실체이며,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이데올로기와 미학의 경기장이자 전쟁터이기도 한 것이다.⁴⁶⁾ ‘담론’을 단순한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 영역을 떠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의도를 지니는 발화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숙영낭자전>의 몸의 담론이라 할 수 있다.⁴⁷⁾

46) 홍덕선·박규현, 『몸과 문화: 인간의 몸을 해석하는 다양한 문화 담론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401쪽.

47) 여기에서 담론은 방브니스트의 정의를 따른다. 사라 밀즈,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16~7쪽 참조.

참고문헌

- 박순호본 <슈경낭자전 권지라>, 『한글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제26권, 월촌문헌 연구소, 1986.
- 나손22장본 <淑英娘子傳 슈경낭자전>,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제27권, 보경문화사, 1991.
- 『特別 淑英娘子傳』, 경성 서적업조합 편집부 편찬, 1920. (현실문화, 2007)
- 이상구 역주,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적 성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66쪽.
- 김용기, 『고소설 인물출생담의 기능과 의미 고찰』, 『어문논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111~136쪽.
- 김일렬, 『고전소설의 민요화 : 숙영낭자전과 옥단춘요를 대상으로』, 『어문론총』 16권, 한국문학언어학회, 1982, 55~66쪽.
- _____, 『조선조 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1~336쪽.
- _____,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주노간의 갈등』, 『어문론총』 28권, 한국문학언어학회, 1994, 51~59쪽.
- _____, 『도선적 신비 속의 사회적 현실 : 숙영낭자전의 경우』, 『어문론총』 29권, 한국문학언어학회, 1995, 25~44쪽.
- _____, 『판소리 숙영낭자전의 등장과 탈락의 이유』, 『어문론총』 30권, 한국문학언어학회, 1996, 69~92쪽.
- _____, 『비극적 결말본 <숙영낭자전>의 성격과 가치』, 『어문학』 66, 한국어문학회, 1999, 151~171쪽.
- _____, 『숙영낭자전연구』, 도서출판 역락, 1999, 1~384쪽.
- 김종철,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291~316쪽.
- 김충실,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시련에 대한 연구』,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대 한국어문연구소, 1984, 225~242쪽.
- 문복희, 『판소리 <숙영낭자전> 연구』, 『어문연구』 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39~53쪽.
-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6쪽.

- 박태상, 『숙영낭자전』, 화경고전문학회 편,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468~479쪽.
- _____, 『조선조애정소설연구』, 태학사, 1996, 38쪽.
- 성현경, 『<숙영낭자전>과 <숙영낭자가>의 비교 : 소설의 판소리화 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6권, 판소리학회, 1995, 5~53쪽.
- 손경희, 『숙영낭자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83쪽.
- 양민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전소설의 활용 방안 시론』, 『외국문학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5, 231~264쪽.
- 윤경수, 『<숙영낭자전>의 신화적 구성과 분석 : 국조신화의 3개 모티프를 중심으로』, 『연민학지』 제7집, 1999, 125~152쪽.
- 이상구, 『환상성과 운명론적 세계관의 본질』,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303쪽.
- 이재선, 『韓國文學主題論』,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1, 7쪽.
- 이희숙, 『숙영낭자전고』, 『한국어문연구』 8, 이화여대 국문과, 1968, 242~257쪽.
- 정선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제재 확장을 위한 시론 :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29~61쪽.
- 최성민, 『그로테스크와 엽기의 주제사(主題史)』, 『현대문학이론연구』 3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75~295쪽.
- 홍덕선·박규현, 『몸과 문화: 인간의 몸을 해석하는 다양한 문화 담론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401쪽.
- 황재강, 『숙영낭자전 해제』, 『한국고전문학전집』 5,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역,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329쪽.
- 사라 밀즈,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16~7쪽.
- Philip Thomson 著, 金榮茂 譯, 『그로테스크 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1~12쪽.

ABSTRACT

A Study on the Body Image of <*Sukyeong-nangja-jeon*>

Jung, In-hyok

<*Sukyeong-nangja-jeon*> is a Korean classical romance novel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practical issues such as women's chastity, Gwageo, the examination to recruit officials during Joseon Dynasty,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re dealt heavily in <*Sukyeong-nangja-jeon*>.

At the same time, the text is a fantastic.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such cases. Two main characters are Taoistic angel from heaven. Their meeting has already been determined by the heaven. And the Body was stuck to the floor with a grudge. *Sukyeong* committed suicide in order to prove her innocence. But She was revived and she still looks alive.

The body of *Sukyeong*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narrative conflict. Because two main characters, they broke the promise of three years without being able to put up with physical desire. Instead of going to the examination site, the hero, *Seon-gun* secretly came back to his lover twice. Physical desire is the key point in these action. However, this is not been noted. The meaning of the body is more important when the heroine committed suicide and she was revi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ody image of <*Sukyeong-nangja-jeon*> and discuss the meaning of the body.

The body image is the reality of sexual and maternal in the <*Sukyeong-nangja-jeon*>. And also the body was suppressed with extreme prejudice by the social ideology. So her body becomes an object. The body image of the text is to expose the absurdity of the feudal patriarchal society.

Key Words body, suicide, revive, women's chastity[貞操], Korean classical romance novel, <Sukyeong-nangja-jeon>

논문투고일 : 2013. 10. 21

심사완료일 : 2013. 11. 25

게재확정일 : 2013. 11. 26